



자원봉사자대회

18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새해 첫 일출

여수 향일암서 가장 먼저 본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내년 첫 일출을 여수 향일암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18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새해 첫날 여수에서는 오전 7시36분에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고흥 오전 7시38분, 완도 오전 7시39분, 해남 오전 7시40분, 광주 오전 7시41분, 흑산도 오전 7시45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년 첫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속도로, 관측 시각은 오전 7시26분27초로 전망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균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증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2년 12월 3일(월) ~ 2013년 1월 11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1월 11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백약이 무효… 근절 안되는 학교폭력

중학생 극단 선택 촉발… 학교지킴이 배치·처벌강화 불구 효과 없어

아듀 2012 광주 전남 사건·사고

2012년에는 어느 해보다 학교폭력, 성범죄가 빨발하고 4·11 총선의 영향으로 정치인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광주시의 입찰 행정을 둘러싼 잡음과 여수 공무원의 거액 횡령은 주민을 실망시켰다. 다시다난했던 2012년의 주요 사건·사고를 정리한다.

2012년 광주·전남은 학교폭력 문제로 어수선하게 시작했다. 대구에서 왕따와 폭력에 시달려온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지난해 말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중학생의 자살로 촉발된 사건의 여파는 연초부터 학교는 물론 지역사

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해당 학생에게 수십 차례나 상습 집단폭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 학교 측과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동급생 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판은 학교당국과 경찰은 사건이 터지자 각종 대책

- ① 폭력 얼룩진 학교
- ② 비리로 법정선 정치인들
- ③ 끊이지 않는 성범죄
- ④ 추락 광주시 행정 신뢰
- ⑤ 최악의 자연재해
- ⑥ 여수공무원 거액 횡령

들을 쏟아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5월 발표한 학교폭력 단속 100일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만 학교 10곳 가운데 4곳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1월 ~ 4월) 동안 학교폭력 사건은 289건이 발생, 가해 학생 783명 중 168명은 선도하고 389

명을 불구하고 입건했으며 4명은 구속됐다.

그러나 학교나 정부 기관의 청원경찰 배치나 안전교육, 처벌 강화 등 '반복되는'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다만 단속에만 치중했던 경찰이 학교폭력을 자신신고하게 했고, 산행·연극 등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북부경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훈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심으로 뉘우친 학생에 한해 훈방조치를 결정했다.

또 민·관·경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예방활동을 펴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용참 (8714)
김종우



임시비리 전 프로야구감독 영장

야구특기생 임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연세대 전 야구감독 A(57)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모 프로야구단 감독과 연세대 감독을 거쳐 현재 서울 모 고교의 야구감독을 맡고 있는 A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술값 주문 내역 취소해 돈 빼돌리

○·현금으로 술값 계산하는 순님들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20대 아트바이트생이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오모(29)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3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이모(33)씨의 술집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현금 40만원을 빼돌리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수입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씨가 현금을 감추는 것을 발견했다"며 "오씨가 8개월간 일했기 때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설명.

/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경찰 조사 한번으로 '벌금 300만원'

쌍방폭력 30대 느닷없는 문자메시지 '황당'

약식기소 절차 부작용… 정식재판 청구 증가

"서○○님에게 벌금 납부명령서 (지로용지) 금일 발송(3~4일 후 도착 예정) 벌금 300만원 2013. 01. 02 까지 납부 요망, 광주지검"

서모(37)씨가 지난 17일 받아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두 달 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 속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벌금

300만원을 통보받은 서씨는 황당했다.

서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 자신이 살던 동네 호프집에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를 불어 네이버 텔레비전에 정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만취한 서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10일

뒤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씨는 담당경찰로부터 '쌍방 과실'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대방의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사과는 받고 싶다"고 진술했다.

그 뒤 50여 일이 지나 그에게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다. 서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며 "적어도 처벌을 내릴 때 인정할 수 있는지 당시 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경찰조사 서류만으로 사건 속에서 선고까지 이뤄지는 현재 약식기소

철없는 선생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남 모 중학교 교사 A(5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글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장원 전 광주여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수의계약 뇌물·교비횡령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8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오장원(54) 광주여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대학 전 도서관장

인 오 전 총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직원 1명과 업체 관계자 4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오 전 총장의 부인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